

## 09. 동아시아의 근세와 한중일 삼국의 역사적 흐름 ①

---

현대 동아시아의 형성(2020s)  
독습용 보조교재 & 과제

## 0. 참고연표

	중국	한반도	일본	중국사, 한국사, 일본사
14C	원(元)	고려(高麗)	가마쿠라 시대	가마쿠라 막부 멸망(1333), (일본)남북조시대 시작(1336), 무로마치 막부 수립(1338)
15C	명(明)		무로마치 시대	막부조 시대 창 건국(1368), 요우릉 보반사건(1380) 조선 건국, (일본)남북조시대 종결(1392), 남북 보반사건(1393), 정난의 역(1398) 소근 요시미즈의 책봉(1401), 정화의 원정(1405-33), 이종무의 대마도 원정(1419) 계해약조(1443), 음민정촌 창제(1446), 돌무질의 난(1448-9)
16C			전국 시대	오닌의 난(1467-77)과 전국시대 시작 경국대전 반포(1485), 무오사화(1498) 갑자사화(1504), 유훈·유철의 난(1510-2), 삼포의 난(1510), 기포사화(1519) 백운동서원 창립(1543) 오다 노부나가와 오다 집성과 전국시대의 종말(1568)
17C			아즈치-모모야마 시대	장거정의 개혁시작(1572), 무로마치 막부 멸망(1573), 돌인·서인의 분열(1575) 노부나가 암살(1582),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통일(1590), 임진왜란(1592), 정유재란(1597)
18C	청(淸)	조선(朝鮮)	에도(江戸) 시대	세키가하라 전투(1600), 에도 막부 수립(1603), 복인의 광해군 주대(1608), 기유조약(1609), 오사카 전투(1614-5), 호국 건국(1616) 인조반정과 서인 북세(1623), 돌림당의 대한말(1625-6), 정묘호란(1627), 일본의 쇄국체제 완성(1639) 호국의 국호변경(『정』)(1636), 병자호란(1636), 이자성의 『대순』 건국과 명의 멸망(1644) 남명 정권 멸망(1661), 『태평성대』(1661-1795), 삼번의 난(1673-81), 여승농정(1674) 네르킨스크 조약(1689)
19C			메이지	오키와 전투(1710) 영조 즉위와 향약책(1724) 간세이개혁(1790) 순조 즉위와 서도정치 시작(1800), 신유사촌(1801), 흥경래의 난(1811) 기해사촌(1839), 연포개혁(1840), 페리제독의 일본내항(1853) 진주민란(1862), 고종 즉위와 대원군 집권(1863), 병인양요(1866), 메이지유신(1868), 신미양요와 대원군의 서원철폐(1871)

## 1. 명조(明朝)의 건국과 흥망

### • 개괄

: 명·청 왕조는 근대 이전의 마지막 왕조들로, 한족과 만주족이란 건국주체의 차이는 있지만 그 성격이 유사한 탓에 대체로 하나의 시대로 파악된다. 중화제국의 지배질서가 완성된 시기이기도 하다.

: 명초에 중국 역사상 최정점에 달한 황제의 전제적 지배권은 청대에도 계속되며, 그 지배층이 「신사」(紳士)인 점도 동일하다. 상업경제의 지속적 발달로 도시문화, 서민문화가 융성한 점도 역시 공통적이다.

: 한편 청 왕조의 영토확장의 결과, 중국사상 최대의 판도가 형성되었으며, 이것이 그대로 현재 중국의 국경범위가 되고 있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동아시아 근세 부분은 이제까지의 서술방법을 답습할 경우, 상당히 분량이 늘어날 수 있는 관계로, 비교적 잘 알려진 한·중 근세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정치적 흐름을 기술하는데 그치고, 비교적 생소한 일본 근세사에 집중하도록 한다.

## 1. 명조(明朝)의 건국과 흥망

### • 개괄 (계속)

: 이처럼 시대 전반에 관한 상세한 통사적 설명을 지양하는 대신, 근세~근현대 부분에 관해서는 한중일의 역사가 상호 교차하는 몇 개의 테마를 선정하여, 그 테마 별로 하나씩 상술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이 시기에 관한 보다 상세한 통사적 지식을 얻고 싶은 학생들은, 가령 naver 지식백과 중 「두산백과」의 「명」(明)・「청」(淸) 항목을 참조하거나, 기존 중국사용 텍스트의 출전이던, 신성곤・윤혜영 공저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서해문집, 2004년)의 해당 부분을 읽도록 한다. 아울러 한국사의 경우는, 이기백 『한국사신론(한글판)』(일조각, 2003년)이 도움이 될 것이다.

## 1. 명조(明朝)의 건국과 흥망

### • 명의 건국과 황제 전제권의 확립

: 명을 건국한 주원장(朱元璋: 1328~1398)은 백련교도 출신으로, 같은 고향출신 휘하 무장들과 강남의 지식인·지주층들의 지원을 받아 1368년 마지막 한족왕조인 명을 건국한다.

: 직전의 이민족 왕조 원에 대한 반감으로, 건국 직후부터 몽골식 풍습을 일소하였으며, 대신 한족 문화의 상징이라 할 유교의 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한다.

: 또한 모든 건국 직후의 왕조들이 그러했듯이, 명 역시 토지 측량+인구조사→안정적 조세수입 확보&중간지배층의 중간수탈 방지→안정적 국정운영이란 단계를 밟는다. 「이갑제」(里甲制)는 명 전반기를 대표하는 조세제도다.

: 한편, 진(秦) 이래 강화되어 온 황제권은 명·청조에 이르러 그 정점을 찍는다. 중국의 역대왕조에서 군주 바로 다음 권력자인 「재상」(宰相: 최고 행정책임자로 이에 해당하는 지위는 시기별로 다르다)의 기원은 사실 고대 율령제 국가가 (계속)

## 1. 명조(明朝)의 건국과 흥망

### • 명의 건국과 황제 전제권의 확립 (계속)

: (계속) 완성되면서 중앙권력에 편입된 각지의 귀족세력의 대표자에 있다. 따라서 그의 지휘 하에 행정을 주도하던 고위 행정기구들(가령 「3성6부」중 3성)도 본질적으로는 군주권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존재였던 것이다. 명 홍무제(주원장)가 중서성을 폐지하고 하부 행정기관(=실행기관)인 6부를 자신에게 직속시킨 것(=재상제도 폐지)은, 따라서 중국사상 획기적 사건으로, 황제권이 그 정점에 달했음을 잘 보여준다. 아울러 지방 행정기구의 권력을 축소하고, 병권 및 사법권을 관장하는 기구까지 자신에게 직속시킨 점도 명대의 황제권 일극집중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 이러한 군주권의 강화는 이후 명 영락제 재위기에 완성되는데, 비판세력들의 처형과 수도 이전, 직속 첩보기관 운영, 대규모 편찬사업과 사상통제, 대외원정은 그 대표적 사례다.

## 1. 명조(明朝)의 건국과 흥망

### • 중앙권력의 비대화와 신사(紳士)의 대응

: 이렇게 강화된 황제권을 보좌할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 「내각」과 환관이다. 이들은 귀족적 연원을 갖지 않고 오직 황제의 충애만이 그 권력의 배경이 된다는 점에서 귀족적 연원을 갖는 재상 및 종래의 고위 행정관료들과는 다르다.

: 황제의 보좌기구 격인 내각(內閣)은 환관과 마찬가지로, 군주와의 가까운 물리적 거리로 인해 득세하게 되었는데, 가령 16C 후반 내정개혁을 주도했던 장거정(張居正)은 그 대표적 존재다. 그는 「북로남왜」(北虜南倭)라는 대외적 위기 속에서 전국적 토지측량과 일조편법이란 조세제도를 실시하여 부실해진 국가재정을 재건하고자 노력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그는 많은 관료들(=기득권층)의 원성을 샀는데, 이는 또 다른 군주권의 전횡세력인 환관세력이 득세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게 된다. 이렇게 대두한 환관세력은 내각에 비해 훨씬 부패로 점철된 정치를 행했으며, 이는 결국 명조를 지방에서 지탱했던 신사층의 집단적 반발을 낳는다.

## 1. 명조(明朝)의 건국과 흥망

- 중앙권력의 비대화와 신사(紳士)의 대응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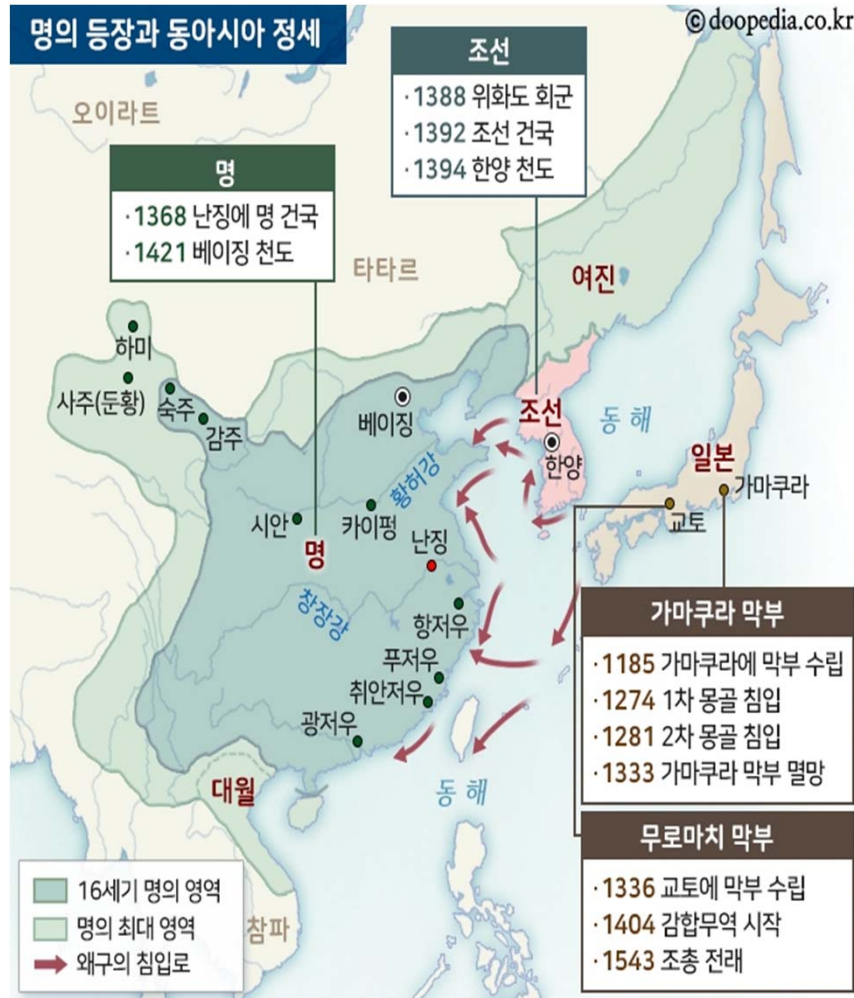
: 이러한 지방 신사층의 반발을 상징하는 존재가 17C 전반에 차례로 등장하는 동림당(東林黨)과 복사(復社)이며, 이들과 관료, 그리고 환관세력의 정치적 대립과 이합집산 속에 명은 멸망한다.

: 중앙집권 지향(황제 및 내각/환관) ⇔ 지방분권 지향(신사)

: 이처럼 환관의 부패와 가혹한 조세수탈, 게다가 17C 전반의 대기근은 농촌을 궤멸적 상태로 내몰았고, 그 결과 각지에서 반란이 빈발하게 된다. 1644년 명조를 멸망시킨 이자성(李自成) 역시 그런 반란세력의 일원이었는데, 청과의 접경지역에 파견되어 있던 장군 오삼계(吳三桂)가 그를 막기 위해 도리어 청군과 연합하여 수도 북경으로 진군한 결과, 청의 중국지배를 불러온다.



# 1. 명조(明朝)의 건국과 흥망: 참고도판



# 1. 명조(明朝)의 건국과 흥망: 참고도판



## 2. 청조(淸朝)의 중국지배

### • 만주족의 성장과 청의 건국

: 중국 동북지방에 거주하던 만주족은 명의 건국 이래 그 간접적 지배하에 있었다. 16C후반 누르하치가 제 부족을 통일하며 세력을 키웠고, 그 과정에서 독자적인 군사/행정조직인 「팔기제도」와 고유문자가 만들어졌다. 1616년 후금(後金)을 건국하며 명에 대한 침공을 개시했고, 한인에 대한 억압 정책을 폈다.

: 누르하치의 뒤를 이은 홍타이지(태종)는 전임자와는 달리 만/한 분리와 한인 귀순자의 우대 정책을 펼쳤고, 국가조직을 정비하여 한족/만주족을 포함하는 다민족 국가를 형성함과 동시에, 중국적인 군주독재+관료국가 체제를 만들어 나갔다. 요동 지배를 안정시키고 조선 및 내몽고를 패배시킨 다음(병자·정묘호란, 내몽고정복), 국호를 「大清」으로 변경하고 본격적인 명 침공에 나선다.

## 2. 청조(淸朝)의 중국지배

### • 청의 중국지배와 대외확장

: 전술했듯이, 이후 청군은 이자성의 난을 빌미로 북중국 지역을 점령했으며, 각지의 저항세력을 제거했다. 그리고 신사층을 중심으로 한 강남지방의 한인세력은 회유책을 통해 지지세력으로 끌어들였다. 그 결과, 청의 판도 중에서 전통적 중국지역에서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지배체제가 형성된다(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가령 팔기제도 등 그 주된 거주 민족의 지배질서를 채택)

: 이런 지배체제의 안정을 바탕으로 강희 · 옹정 · 건륭 3명의 황제의 치세기간 동안 청 왕조는 그 절정기를 맞는다(「태평 성대」: 1661~1795)

: 국정의 안정은 대외적 확장을 가능하게 했는데, 가령 삼번의 난 진압 및 정성공(鄭成功) 세력의 정벌, 러시아와의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 준가르부 정벌 등의 몽고정복, 신강성 설치, 티베트 장악 등은 그 대표적 사례다. 이들 지역은 점차 중국의 직접적 지배 하에 놓이게 된다(→중국사상 최대판도).



## 2. 청조(淸朝)의 중국지배: 참고도판



### 3. 조선 왕조의 건국과 흥망: 주된 정치적 흐름

#### ① 국가 형성기(14~15C)

- 건국 직후 일부 개국공신 세력(사대부 출신)의 권력독점
- 다른 사대부들의 불만과 이방원(李芳遠)의 쿠데타
- 세종의 집현전 설치와 집현전 학자들의 권력장악
- 세조와 불평사대부들의 반발, 권력장악
- 『경국대전』의 반포와 통치체제 완성(국왕→신하. 탑다운)

#### ② 사림(士林)세력의 등장(15C후반)

- 세조의 쿠데타에 가담한 결과로, 고관직을 독점하고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많은 토지를 소유하게 된 일부 사대부 집안 (=훈구세력)
- 성종이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다른 세력을 등용. 이들은 지방에 근거지를 지닌 재야 독서인층으로 중소규모의 지주들

### 3. 조선 왕조의 건국과 흥망: 주된 정치적 흐름

#### ②사림(士林)세력의 등장 (계속)

→성종이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다른 세력을 등용. 이들은 지방에 근거지를 지닌 재야 독서인층으로 중소규모의 지주들(=사림세력). 이들이 기존 지배세력을 비판한 결과 「사화」(士禍) 발생

→연산군 시기의 「무오사화」(1498), 「갑자사화」(1504)

→중종의 조광조(趙光祖) 등용과 유교적 도덕국가 건설시도

→훈구세력의 조광조 제거(1519: 「기묘사화」), 인종-명종 대의 왕위계승 쟁탈(1545: 「을사사화」)

→이상의 사화를 거치며 사림세력이 지방의 서원과 향약을 이용하여 지지기반을 넓힌 결과,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16C후반)

→군주의 의견보다는 이들 사림의 전체의견(=公論)이 우위

→그러나 이들 사림은 이후 개별 정국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내부분열, 「붕당」(朋黨)이 발생

### 3. 조선 왕조의 건국과 흥망: 주된 정치적 흐름

#### ③ 봉당정치와 대외적 혼란

- 명종대 동인(東人: 신진관료) · 서인(西人: 기성관료) 분열
- 초기에는 동인이 압도했으나 서인에 대한 대처를 놓고 남인(南人: 온건파) · 북인(北人: 강경파)로 재분열
- 북인의 광해군 추대(17C전반)과 서인의 「인조반정」(1623). 이후 정권은 서인세력에게
- : 「임진왜란」(1592) · 「정유재란」(1597) · · · 추후 테마
- : 「정묘호란」(1627) · 「병자호란」(1636)

#### ④ 노론(老論)의 득세와 벌열(閥閥)정치(17C후반~18C초)

- 효종의 송시열(宋時烈) 등용과 서인의 권력 장기독점
- 남인의 일시적 등용(1674, 1689)
- 서인이 「노론」(송시열 계열) · 「소론」(少論: 윤증 계열)로 분열



### 3. 조선 왕조의 건국과 흥망: 주된 정치적 흐름

#### ④ 노론(老論)의 득세와 벌열(閥閥)정치 (계속)

→이후 노론계열이 정권을 독점하고 과거제도를 악용하여 권력 세습(=장기집권). 이런 노론 소수가문에 의한 권력독점이 「벌열」정치

→권력에서 배제된 대다수의 사림은 낙향하여 지방유력자로 되돌아가거나(=山林), 혹은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농업에 종사(=殘班)

#### ⑤ 영조 · 정조의 중흥기(1724~1800)와 「탕평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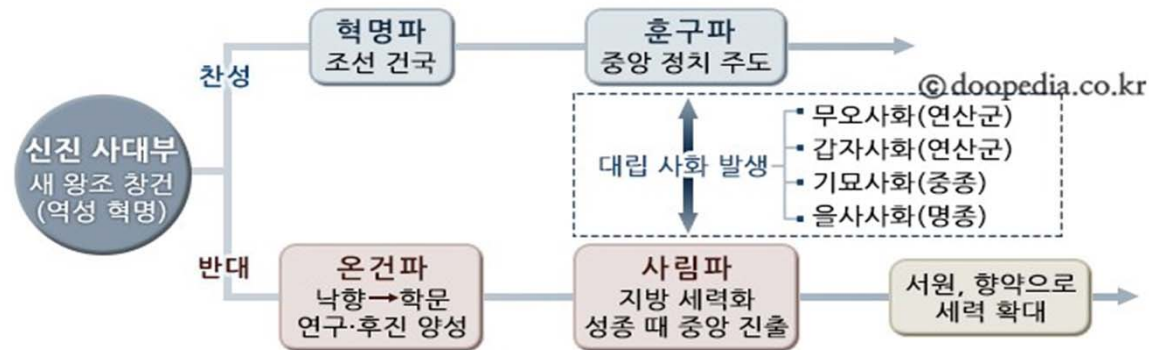
#### ⑥ 세도정치(19C전반)의 시작... 외척 일족의 권력독점

→안동 김씨(순조), 풍양 조씨(헌종), 안동 김씨(철종)

→사림 및 노론의 몰락과 정치부패

#### ⑦ 고종의 즉위와 대원군의 군주권 강화시도(19C중엽)

### 3. 조선 왕조의 건국과 흥망: 참고도판



붕당의 계보도

